

누락·삭감 지역현안 사업비 여야 정치권 얼마나 되살려줄까

광주시·전남도 3·4일 새정치·새누리과 잇단 예산정책협의회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상당수가 정부 부처 심의에서 누락되거나 대폭 예산이 깎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리를 책임질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가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국립 난대산림 치유단지 조성 등 신규 사업들이 빠져나가 누락되면서 '광주·전남 미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광주시장에서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누락 사업의 예산 반영을 재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기조에 광주·전남에 대한 예산 배정비율도 갈수록 축소되는 분위기여서 여야의 이번 방문이 국비 확보에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정부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 계획을 넘겨받아 최종 정부안을 수정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5일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고,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의 국비 반영률은 각각 67%와 57%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처 심의에서 대폭 깎여

내년 예산 재반영 요청

대부분의 신규 사업은 누락된 상태다.

광주시의 대표 누락사업은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총 사업비 1175억원) 설계용역비 20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문화민박촌·문화방 조성(293억원) 17억원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조직 설립(405억원) 10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조직 설립(379억원) 74억원 ▲용두~담양대천간 도로확장(300억원) 21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1293억원 ▲북항방사선원플랫폼 구축(350억원) 10억원 ▲로봇산업 융합핵심개발·상용화(280억원) 48억원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힘들 정도다.

전남도의 누락·축소된 사업도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1500억원→50억원 반영),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200억원→미반영),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5000억원→217억원), 남해안철도(보성~임성) 건설(1500억원→200억원), 국도 2호선(하의~신의) 시설개량(208억원→미반영) 사업 등이다.

또 진도 군내~서방 간 도로개설 공사(100억원→미반영),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258억원→45억원),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94억원→12억원) 등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가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도 30억원 전액이 미반영됐다. 비파괴검사(NDT) 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50억원), 국립 난대산림 치유단지 조성 사업 등도 반영되지 못했다.

시·도는 간부 공무원이 정부 부처에 상주하는 등 국비 예산 확보에 올인하고 있지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회로 예산이 넘어오면 적극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초기 예산부터 공을 들여야만 반영률이 높아진다는 게 시·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평가기인 이른바 '족자예산'이 각종 부작용을 낳으면서 올해부터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득이나 소외된 호남권이 국비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면 타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전남 정부예산 대표 누락·감액 사업 (단위:억원)

사업명	총 사업비	요구액
3D 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	1,175	20
용두~담양대천간 도로 확장	300	21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 문화 민박촌·문화방	293	17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	1,293
한국 전기연구원 광주 설립	405	10
복합 방사선원 플랫폼 구축	350	10
로봇산업 융합 핵심개발·상용화	280	48
한국에너지 기술 연구원 광주 설립	379	74

사업명	총 사업비	요구액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	31,500	1,500
남해안철도(보성~임성) 건설	13,083	1,500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400	200
가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1,500	30
비파괴검사(NDT)기술 연구기반 구축	450	50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18,100	5,000
진도 군내~서방간 도로개설 공사	2,495	100
국도 2호선(하의~신의) 시설개량	686	208



새내기 의원 15명 의원선서 7·30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 이정현 의원, 새정치 박광온·이재호·신정훈·권은희 의원 등 15명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산하기관 인사 가늠자...광주도시공사 사장 누구?

광주시 민선 6기 첫 공기업 임원 인사 관심 집중 신설 사회통합·참여혁신단장 공모 특정인 입찰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광주시 신설조직인 사회통합추진단·참여혁신단을 이끌 단장 공모를 앞두고 특정인들이 입찰에 오르고 있다.

특히 도시공사 사장은 민선 6기 윤창현 광주시장 들어 첫 공기업 임원 인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도시공사 사장을 공모 중이다. 현재까지는 응모한 인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안팎에서는 윤 시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선대 도시계획 전공 조모 교수가 응모할 것이라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시장 선거 당시 윤 시장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 국장 출신 정모씨와 도시공사 임원 출신 임모씨 등도 자천 타천으로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도시공사 사장 선임 과정과 결과에 앞으로 공기업 등 산하기관 임원과 직원 임명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응모 절차가 마무리되면 후보들을 상대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한 뒤 내달 초 사장 후보를 윤 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 추천 2명(정형식 조선대교수, 이병록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시의회 추천 3명(나무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차현국 변호사, 노경수 광주대 교수), 이사회 추천 2명(김병만 광주대 교수, 이영규 전 광주지방국세청 국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윤 시장의 시정철학을 이끌어 시 본청 신설 조직인 사회통합추진단과 참여혁신단 등의 단장 선임도 관심이다. 사회통합추진단장에는 박모 전 모 기업 노조위원장, 참여혁신단장에는 김모 연구원 출신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조직이 시정임선에 앞서 인사에 개입했다는 루머가 퍼지는 등 임성 전부터 각종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들 조직이 공직사회와의 조화 속에 윤 시장의 시정철학을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외부 조직이 공직사회에 들어왔다가 제대로 정착한 전례는 수도룩하다"면서 "기존 조직과 협력하지 않고, 시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정경준의 행세를 한다던 민선 6기 사업은 커녕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해 1인당 채무 광주 54만원·전남 56만원...상승세 한풀 꺾여

광주시와 전남도민의 1인당 채무규모가 5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재정규모는 4조2424억원으로 전년 대비 3550억원(9.1%) 증가했다.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1조9490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은 1조7661억

원, 지방채·예치금 회수는 5237억원이다. 광주시의 재정규모는 전국 8대 특·광역시 평균(8조3797억)보다 4조1373억원 적었다. 자체수입은 평균보다 3조7225억원, 의존재원은 1454억원이 적었다. 재정자립도는 37.3%로 전국 평균 50.1%를 크게 밑돌았으며 재정자립도도 57.1%로 전국 평

균 75.1%보다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 채무는 7987억원, 주민 1인당 채무는 54만2000원이었다. 전남도민의 1인당 채무액은 56만원으로 전년 61만7000원에 비해 5만7000원(9.2%) 줄었다. 채무액은 지난 2008년 28만4000원에서 2009년 47만5000원, 2010년 50만5000원, 2011년 62만1000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2012년 61만7000원으로 줄었다. 지방채 총액은 2012년 1조1796억원에서 1조6839억원으로 여전히 1조원대를 유지했다. 인구가 매년 줄거나 제자리 걸음인 만큼 부채총액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이상,

광주시 자체수입 특·광역시 평균보다 3조 이상 적어 전남도 재정자립도 18.88%...전년비 2.75%p 올라

1인당 채무는 크게 줄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도 살림규모는 7조2707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7조3106억원)보다 399억원이 적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8.88%로 2012년 16.31%보다 2.57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평균 50.1%에 비하면 비

척없이 낮은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전남도청 공무원 인건비로 2784억원, 업무추진비 22억원, 지방의회 경비 43억원, 맞춤형 복지비로 57억원을 지출했으며 채남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은 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www.HanaTour.com

문의전화 062)228-1199
주소: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근무시간: 09:00~20:00(연무휴)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가람여행사 수원점 062)955-5230
세정투어여행사 삼주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리치투어 명산구 월계동 침선(2) 062)431-0102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2014년 하나투어와 함께, 즐거운 여름휴가 떠나세요!

지역별 추천
허니문 상품

AAW199-1 코사우이 6일 뉴 실라바디 파노라마 풀빌라
총 상품가 1,707,600원 ~

AAW103-6 다낭 5일/6일 노보텔 + 푸전미아아 원베드 풀빌라
총 상품가 1,571,600원 ~

PAW401 시드니/골드코스트 7일 대한항공 상품
총 상품가 2,730,600원 ~

SSW201-D 칸쿤 7일 하얏리리조트 리조트
총 상품가 3,089,400원 ~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체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여행상품 가격표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통료, 관광보험료, 관공보험료, 운송보험료,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보험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지,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에게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관광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 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숙박비란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일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 가능)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명입 보증보험 22억 1천만 원 가입